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 분석*

The Path Analysis Among Risk-Protective Factors on the Resilience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김승경(Seung Kyoung Kim)¹⁾

강문희(Moon Hee Kang)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paths among the risk-protective factors that related to the resilience based on the Challenge Model.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09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in the 4th, 5th,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Gyunggi-do. As the results, there were 28 paths which affected the resilience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based on the Challenge Model. The protective factors were easy temperament, problem-focused coping style, parental support, peer's support, higher socio-economic status, experiences in therapy, presence of siblings, contact with adult caretakers. The risk factors were higher grade, emotion-focused coping style, and children's gender, especially girls. This result demonstrated that each risk and protective factor not only affected resilience separately but interacted with one another.

Key Words : 이혼 가정(divorced family), 탄력성(resilience), 위험요인(risk factor),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 도전모델(Challenge Model).

I.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혼율의
급증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이 경

험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상의 위기로 등장하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의 경

* 이 논문은 2003년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서울여자대학교 인간개발학부 아동학전공 강사

²⁾ 서울여자대학교 인간개발학부 아동학전공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ung Kyoung Kim,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126
Kongnung-dong, Nowon-gu, Seoul 139-774, Korea E-mail : skkim0822@swu.ac.kr

힘을 제공하여야 할 가정이 해체된다는 것은 이혼의 당사자인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스트레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이혼이라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들의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 정상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이혼 가정의 아동들이 많은 위험요인(risk factor)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해왔다. 이렇게 위험요인을 강조하는 위험 모델의 관점에서는 아동이 위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적응 수준이 더 많이 저하된다는 것을 가정하지만, 실제로 이혼과 같은 고 위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아동들이 모두 부정적 영향만을 얻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혹은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충시키거나 오히려 적응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말해, 고 위험의 스트레스들은 아동들에게 위협으로도 보여지고 기회로도 보여진다(Wolin & Wolin, 1993).

이에 최근의 연구는 위험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전 모델(Challenge model)을 강조하는데, 도전 모델은 이혼과 같은 고 위험의 상황에서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더불어 아동들이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보호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보호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아동들은 이혼과 같은 고 위험의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충시키거나, 적응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아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 심리사회적 능력인 탄력성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에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역기능을 나타내는 특성보다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이를 극복하여 성장에 이르게 하는 특성인 탄력성을 촉진함으로써 아동들이 신체적, 심리사회적 장애나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혼 가정 아동들의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상위분석을 통해 Emery와 Forehand(1996)가 밝힌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지지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성인 지지자와의 만남을 갖는 경우,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 집단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 등이 있었으며, 위험요인은 성별이 남아인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까다로운 기질, 회피적인 대처방식의 사용, 부부간 갈등, 낮은 경제력, 빈약한 양육 기술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상위분석 연구결과에서 보호 및 위협의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각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Emery & Forehand, 1996).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혼 가정 아동들에게 이러한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아동들이 긍정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가설적인 구조를 설정하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Buss와 Plomin(1975)은 기질의 근원이 유전에 있고 환경의 영향에 따라 그 형성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환경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질을 변화시킬 뿐 아무리 강한 환경일지라도 기질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변화조차도 잠정적인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원래 상태로 회귀한다고 주장한 반면, Thomas와 Chess(1977)는 기질적인 차이는 생의 초기 인성 형성에 있어서 환경적인 영향과 상호작용하며, 아동은 개인차를 가지고 태어나

기 때문에 기질유형이나 범주가 각 연령마다 다양하고, 기질이 환경의 영향력을 중재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기질은 가정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보다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며, 순한 반응 강도와 높은 감각역치를 나타내고, 보다 공격적이고 적대적이고 과활동적이며 산만한 기질 특성을 나타내는데 비해,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보다 더 집중하고 방관자적인 기질 특성을 나타낸다(설인자, 1995).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Blennow & McNeil, 1981)고 보는 반면, Ventura와 Stevenson(1986)은 높은 경제적 수준의 부모가 아동의 기질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등 사회경제적 수준과 아동의 기질과의 상관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기질은 학습하는 태도, 친구들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 일반적인 학교생활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이영 · 조연순, 1994, 재인용).

둘째, 부모의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는 남아에게 더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Block, 1983)는 연구결과와는 달리,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다(최시원, 1997)는 결과도 있으며,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에 있어 더 긍정적인 것(김인순, 1991; Fox, 1995)이라는 결과와는 달리,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더 과 보호적이고 통제적(문혁준, 2001)이라는 결과도 있었다. 부모들은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에 비해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에게 더 방임적이며 통제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혁준, 2001; Lytton, 1990).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동의 기질이 사교적이며, 쉽게 진정될수록 효율적인 훈육태도를 보이는 반면,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달리 자녀수가 많

을수록 효율적인 훈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혁준, 2001).

셋째, 친구 및 교사의 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나 교사는 아동에게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서 차이가 나는데(권연희 · 박경자, 2003), 남아가 여아보다 더 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며(Berndt, 1981; Tietjen, 1982), 가정 밖의 외부환경을 보다 잘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다(Bryant, 1985)고 본 반면, Dubow와 Ullman의 연구(1989)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지지망이 더 넓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다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능력을 확장(Garbarino & Gilliam, 1980)하게 되므로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 지각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한미현, 1996), 아동 후기로 갈수록 가족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친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가족이나 교사들과의 관계보다 더욱 밀착되므로 학년이 높을수록 친구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가족 지지나 교사 지지는 낮게 지각할 것으로 추론된다(한미현, 1996).

아동기의 형제자매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사회화에 중요한 장을 제공하고(Crouter & McHale, 1989), 형제자매를 통해 배운 사회적 기술은 또래관계와 같은 가족 외 관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민정 · 도현심, 2001; Stocker & Dunn, 1990).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고, 또 아버지가 사무관리직 이상의 상위직종에 종사하고, 가계소득이 많을 때 아동은 대체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타인들과 접촉하는 것

을 더 많이 격려하고, 아동의 사회적 지지 추구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훈련(Cochran & Brassard, 1979)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한미현, 1996).

또한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에게 더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평소에 잘 웃고 유쾌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상호 작용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Sroufe, Schork, Motti, Lawroski, & Lafreniere, 1984). Izard(1994)는 부정적인 기질, 특히 부정적 정서성을 가진 아동과 상호작용하면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교사나 또래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교사나 또래는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상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는 아동에게 또래와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제공해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가르치고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조언을 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dd, 1992; Ladd, Le Sieur, & Profilet, 1993).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학생들은 대인관계를 학습하고, 적대감정, 지배욕 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며, 권위자를 대하는 방식, 타인을 통솔하는 방법을 배운다(백종관, 2002). 교사 역시 아동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유아기 동안에는 가정이 주된 환경이었으나 아동기에는 학교입학과 더불어 또래와 교사 등이 아동의 생활에서 중요한 타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교사 또는 학교 내의 여러 사람들로 아동의 사회관계망이 확대된다(Feiring & Lewis, 1987). 교사는 교사의 말과 규칙을 잘 따르는 것과 성격이 원만하고 귀여운 점이 지적되는 아동들, 사회적으로 중류집단인 아동들에게 주

로 관심을 갖는다(김지영, 1986)는 연구 결과와는 달리, 유아-교사관계의 질이 유아의 또래관계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Howes, Matherson, & Hamilton, 1994)는 결과도 있다.

넷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 있어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더 회피적인 정서 조절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희수 · 박성연, 2002).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에 상관없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중심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 즉, 소극적 대처방식을 가장 사용한다(추정옥, 2001)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학년별로는 4, 5, 6학년 아동 모두 내적 감정발산, 적극적 문제해결의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극적 문제해결방법을 덜 사용한다(이정미, 1996)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형제가 없고 혼자인 경우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의지할 형제가 없고 자립심, 책임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김지숙, 2003). 평소에 잘 웃고 유쾌한 기질을 가진 아동은 교사와 또래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행동하는 아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전략을 제시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한 아동은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인 것과 같은 부정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하는 경향이 높았다(임희수 · 박성연,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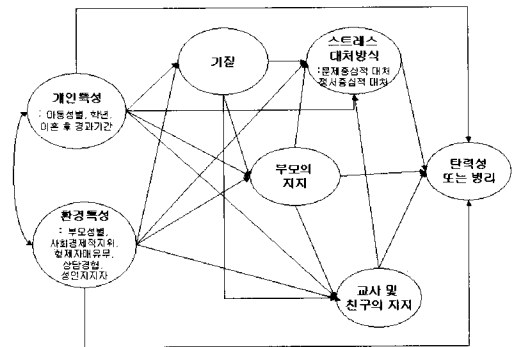
Garnezy(1980)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견디어 내는 아동들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부모의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을 이완하며, 적응적인 대응행동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애정적, 일관성있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와 정

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합리적 지도 및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공격적 표현이나 회피적인 방식과는 부적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희수·박성연, 2002).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김미영, 1999; 정동화, 1996), 특히 또래와 원만하게 지내는 아동은 내면화와 외면화라는 도피적인 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사회적 지원을 찾거나 자기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접근적 방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심희옥, 200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데 있어 한 개인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가지 대처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사건마다 다른 대처를 보일 수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주로 한 가지 대처만을 고집한다. 두 대처방식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어떤 대처방식은 문제중심적이면서도 정서중심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의 대처방식을 인지적 평가에 의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행동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마다 대처방식의 선택을 일관되게 지배하는 개인적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민하영·유안진, 2000).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노력은 당면한 사건의 인지적 평가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고 이 반응에 의해 상황이 변하거나 상황에 대한 느낌이 변하여 사람과 환경 사이의 관계가 바뀐다면 또 다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 다시 이에 대한 대처노력을 하는 순환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다섯째, 아동의 탄력성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가족은 아동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아동이 가족과의 지지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사랑과 수용, 안전의 느낌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처전략을 증진시켜 스트레스를 유

발하는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적응과 안녕에 도움을 줄 것이다(Barrera, 1981; 한미현, 1996).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하게 되며(한미현, 1996; Windle, 1992), 긍정적 또래관계는 부적응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발달에 기여한다(Kupersmidt, Coie & Dodge, 1990). 이 밖에도 아동이 부모 이외의 성인 지지자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집단상담을 받는 경험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mery & Forehand, 1996). 생활조건의 변화 및 가족의 큰 변화 등을 경험한 내담자들을 위한 상담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긴장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 증상 및 고통을 해소하고, 내담자가 더 이상 혼란되지 않도록 하고 과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적응 수행력을 회복시키고, 위기의식을 촉발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 이해를 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장호, 1995), 이혼 가정 아동들이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처방식은 사회·정서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중재변수라고 보는 주장이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민하영·유안진, 1998; Lazarus & Folkman, 1984; Parker & Endler, 1996).



〈그림 1〉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구조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도전모델에 근거하여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밝히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그림 1>과 같은 가설적 구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 관계의 경로가 밝혀지게 되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보다 잘 대처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아동들이 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이혼 가정 아동 관련 변인들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이혼 가정 아동 관련 변인들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예비조사와 사전조사를 통해 연구

<표 1> 연구대상의 분포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114	54.5	동거부모 학 력	무 학	3	1.4	
		여	95	45.5		초등학교 졸업	10	4.8	
		합 계	209	100.0		중학교 졸업	20	9.6	
학 년		4학년	60	28.7		고등학교 졸업	119	56.9	
		5학년	109	52.2		전문대 졸업	1	0.5	
		6학년	40	19.1		대학교 졸업	51	24.4	
		합 계	209	100.0		대학원 졸업	5	2.4	
양육부모		부	112	53.6		합 계	209	100.0	
		모	97	46.4		가정의 경제수준	하 류 층	11	5.3
		합 계	209	100.0			중하류층	64	30.6
형제유무		형제 있음	86	41.1	중 류 층		112	53.6	
		형제 없음	123	58.9	중상류층		22	10.5	
		합 계	209	100.0	상 류 층		0	0	
이혼 후 경과기간		0-2년	66	31.6	합 계	209	100.0		
		3-5년	68	32.5	동거부모 직 업	무 직	3	1.4	
		6-8년	50	24.0		일일노무자	5	2.4	
		9년 이상	25	12.0		피고용 기능인	50	23.9	
		합 계	209	100.0		자 영업	79	37.8	
상담 및 치료경험		경험있음	28	13.4		사무/기술직	59	28.2	
		경험없음	181	86.6		관 리 직	8	3.8	
		합 계	209	100.0		전 문 직	5	2.4	
부모 이외의 성인지지자 유무		지지자 있음	78	37.3		합 계	209	100.0	
		지지자 없음	131	62.7		(*자료 입력시 남성은 1, 여성은 2로 코딩하였음)			
		합 계	209	100.0					

에 사용될 척도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3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실시한 예비조사에서는 경기도지역 초등학교 4-5학년 아동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작성된 문항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어휘를 수정하였다. 사전조사는 2003년 3월에 서울지역 초등학교 4-6학년 69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사용될 척도들의 구체적인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6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 5, 6학년 학생들 중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20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기질

기질은 아동 및 청소년의 기질을 측정하는 개정판 기질차원척도(Windle, Hooker, Lerner, East, Lerner, & Lerner, 1986)를 김정민(1993)이 번안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개정판 기질차원척도는 기질이 하위 10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질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고 구인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40보다 높은 20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들을 설명하는 전체누적변량은 61.36%였으며, 각 하위요인은 정서성(15.63%), 규칙성(14.71%), 활동수준(14.53%), 인내 및 집중력(8.89%), 적응성(7.61%)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본 척도에서 통합된 기질은 밝은 정서를 표현하고, 규칙

적인 생활을 하며, 인내심이 있고 집중력이 높으며, 쉽게 적응을 잘 하는 아동이 높은 기질 점수를 얻는 것으로 보았으며,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859이고,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2) 양육부모의 지지

양육부모의 지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Harter(1985)의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을 토대로 한 김문혜(1999)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인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인 5문항이 추출되었고, 이들을 설명하는 전체 누적변량은 72.425%로 각 하위요인은 부모의 이해 및 공감(45.038%)과 부모의 수용(27.387%)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828이고,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3) 교사의 지지 및 친구의 지지

교사와 친구의 지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Harter(1985)의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을 토대로 한 김문혜(1999)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구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요인분석에서 .4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낸 문항을 추출하였다. 교사의 지지를 설명하는 전체누적변량은 66.838%이고, 각 하위요인은 교사의 도움(33.829%)과 교사의 관심과 인정(33.009%)으로 개념화할 수 있었으며,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792였다. 친구의 지지를 설명하는 전체누적변량은 57.138%이며, 각 하위요인은 친구의 이해와 공감(30.574%)과 친구의 수용(26.564%)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804였으며,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4) 스트레스 대처방식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척도는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공격적 대처, 회피적 대처,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 등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처방식의 하위 영역을 통합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인 문항을 추출하고, 변인들간의 공통요인을 찾기 위한 주축분석을 통해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등 2개의 요인으로 통합하였다.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설명하는 전체누적변량은 60.373%로 각 하위요인은 적극적 대처(35.885%)와 사회적 지지 추구적 대처(24.487%)로 개념화할 수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856였다.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설명하는 전체누적변량은 49.313%로 각 하위요인은 공격적 대처(27.096%)와 소극적 대처 및 회피적 대처(22.217%)로 개념화할 수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675였다. 두 척도 모두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두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 스트레스의 원인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스트레스원을 향한 행동적, 인지적, 혹은 정서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 스트레스 상황과 연결된 감정상태를 조절하려고 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원을 멀리하려는 행동적, 인지적, 정서상의 전략을

의미함.

5) 탄력성

아동의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윤현희·홍창희와 이진환(2001)이 제작한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를 아동이 지각한 탄력성 척도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인 최종 12문항을 추출하였는데, 이들을 설명하는 전체누적변량은 61.919%로 각 하위요인은 주도성과 낙천성(18.432%), 관계성(16.993%), 이해력(14.336%), 공감(12.157%)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본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788이고,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6) 기타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성별, 학년, 연령, 이혼 후 경과기간, 양육부모의 성별, 형제유무, 양육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이외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성인 지지자가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후 상담 및 치료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및 횟수 등을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LISREL 8.54 프로그램을 통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도전모델을 토대로 선행연구에

<표 2> 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square	확률치(P)	GFI	AGFI	NFI	NNFI	RMR
부합도	60.35	.13	.96	.91	.91	.95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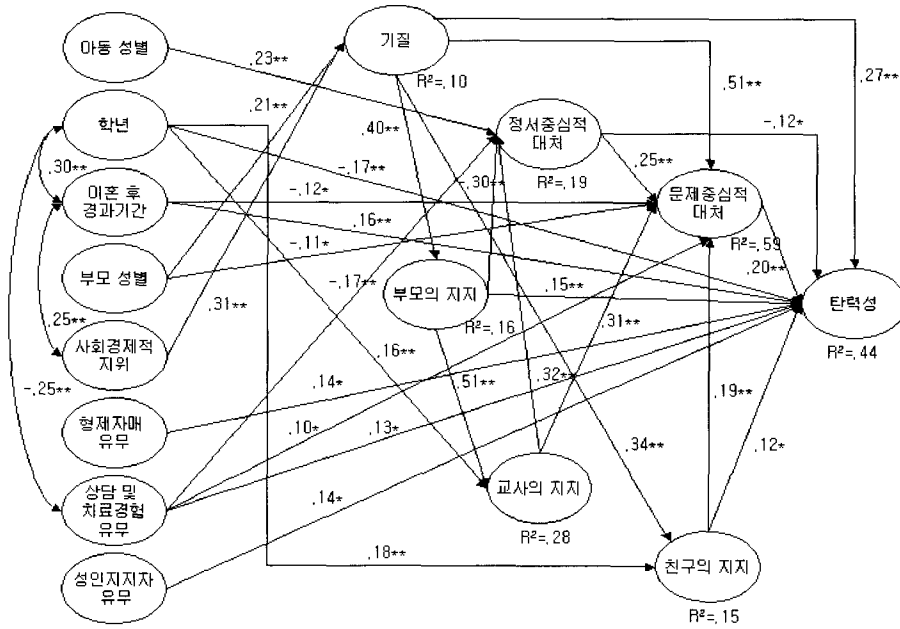
서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져 온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러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경로를 검증하였는데, 본 검증모델이 주어진 경험 자료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한 전반적 지수는 <표 2>와 같다.

본 검증모델에서의 카이제곱치는 60.35이고 확률치(P)는 0.13으로, 확률치가 $p>.05$ 이므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기초부합치(GFI)는 0.96, 조정부합치(AGFI)는 0.91, 표준부합치(NFI)는 0.91, 비표준 부합치(NNFI)가 0.95로 일반적으로 좋은 부합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0.90을 넘는 수치를 보이고, 원소간 평균차이(RMR)도 0.050으로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1. 이혼 가정 아동 관련 변인들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들이 상호작용 한다는 도전모델에 근거하여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설정한 일차적 구조를 검증한 결과, 본 모형에서는 이론적으로 구성된 구조 중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28개의 경로가 검증되었으며, 이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경로 모형에서는 이론적으로 가정된 경로들 중 유의미한 변인들만을 표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경로 및 영향력은 <표 3>과 같다.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는 모두 10개로, 밝은 정서를 갖고 규칙적이며 변화에 융통적으로 적응하는 아동의 기질,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정서중심적 대



<그림 2>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 관련 변인들의 경로

처방식, 부모의 높은 지지, 친구의 높은 지지, 높은 학년, 부모의 이혼 후 경과기간이 긴 경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성인 지지자와 만남을 갖는 경우, 상담 및 치료를 받은 경험 등이 탄력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에 대한 이러한 모든 변인들의 설명

력은 44%였다.

2. 이혼 가정 아동 관련 변인들이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각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전체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변인들은 직접적으

<표 3>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관한 검증 구조 분석 결과

path to	from	영향경로	경로계수	T-value	R ²
탄력성	학 년	γ_{12}	-.17	-2.95**	.44
	이혼경과기간	γ_{13}	.16	2.78**	
	형제자매유무	γ_{15}	.14	2.55*	
	성인 지지자 만남	γ_{18}	.14	2.57*	
	상담경험유무	γ_{19}	.13	2.34*	
	기 질	β_{12}	.27	3.84**	
	문제중심적대처	β_{13}	.20	2.73**	
	정서중심적대처	β_{14}	-.12	-1.99*	
	양육부모의 지지	β_{15}	.15	2.60**	
친구의 지지	β_{18}	.12	2.12*		
기 질	부모의 성별	γ_{24}	.21	3.04**	.10
	사회경제적지위	γ_{26}	.31	4.42**	
문제중심적 대처	이혼경과기간	γ_{33}	-.12	-2.50*	.59
	부모의 성별	γ_{34}	-.11	-2.33*	
	상담경험유무	γ_{39}	.10	2.15*	
	기 질	β_{32}	.51	9.95**	
	정서중심적대처	β_{34}	.25	5.14**	
	교사의 지지	β_{37}	.31	6.67**	
친구의 지지	β_{38}	.19	3.86**		
정서중심적 대처	아동의 성별	γ_{41}	.23	3.61**	.19
	상담경험유무	γ_{49}	-.17	-2.69**	
	양육부모의 지지	β_{45}	-.30	-4.05**	
	교사의 지지	β_{47}	.32	4.34**	
양육부모의 지지	기 질	β_{52}	.40	6.17**	.16
교사의 지지	학 년	γ_{72}	.16	2.61**	.28
	양육부모의 지지	β_{75}	.51	8.49**	
친구의 지지	학 년	γ_{82}	.18	2.72**	.15
	기 질	β_{82}	.34	5.11**	

* $p < .05$ ** $p < .01$

로 혹은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변인은 형제자매의 유무(.14), 성인 지지자와의 만남 여부(.14), 문제중심적 대처방식(.20) 등이었고,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성별(-.016), 부모의 성별(.084), 사회경제적 지위(.156), 교사의 지지(.040) 등이었다.

전체효과와 측면에서 탄력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호 및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보호요인은 밝은 정서를 가진 융통성있는 아동의 기질,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사용, 높은 양육부모의 지지, 높은 친구의 지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상담 경험, 형제자매의 존재, 성인 지지자와의 만남 등의 순서로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높은 설명효과를 나타내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질은 탄력성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전체효과는 .502였다. 기질은 탄력성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기질에 미친 간접 효과로 인해서도 탄력성에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전체 인과효과가 가장 큰 보호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환경에 융통성있게 잘 적응하고, 규칙적인 생활 태도를 포함하는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은 이러한 기질적 특성을 통해 높은 탄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특성을 가짐으로써 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간접적으로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문제중심적 대처방식(.200)은 탄력성에 직접적인 효과만을 가지지만, 그 인과효과가 매우 큰 보호요인으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방식은 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양육부모의 지지(.191)와 친구의 지지(.158)는 탄력성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서도 탄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156)는 이와 달리 탄력성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은 기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탄력성에 큰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보호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높은 학년,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전체효과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

<표 4> 탄력성에 대한 설명변수의 전체효과 분석 결과

변 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아동의 성별	--	-.016	-.016
학 년	-.17	.097	-.073
이혼 후 경과기간	.16	-.024	.136
양육부모의 성별	--	.084	.084
사회경제적 지위	--	.156	.156
형제자매의 유무	.14	--	.140
상담경험 유무	.13	.012	.142
성인 지지자 만남	.14	--	.140
기 질	.27	.232	.502
정서중심대처	-.12	.050	-.070
문제중심대처	.20	--	.200
양육부모의 지지	.15	.041	.191
교사의 지지	--	.040	.040
친구의 지지	.12	.038	.158

타났다.

첫째, 학년 변인(-.073)은 탄력성에 대한 직접 효과가 부정적이었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다소 완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서중심적 대처방식(-.070)이 탄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정적이었으나,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아동들이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함께 사용할 때 위험효과가 다소 완충된 것을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전모델 구조를 근거로 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각 변인들 간의 가설적 상호작용 관계를 가정하고, 아동의 성별, 학년, 이혼 후 경과기간 등의 개인특성 변인과 부모의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 형제의 유무, 상담 및 치료 경험 여부, 성인 지지자와의 만남 유무와 같은 환경 특성 변인, 그리고 기질, 스트레스 대처방식, 양육부모의 지지,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등의 변인들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변인들은 이론적으로 가정된 경로 중 총 28개의 경로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경로모형에서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 보호요인의 경로를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 후 경과 기간(.136)은 탄력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혼 후 경과기간이 오래 될수록 아동들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의 이혼과 같은 고 위험의 스트레스

에서 회복하고 적응하는 경향은 있으나, Elias (1983)의 연구결과처럼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일수록 불안이나 우울 등의 내면화 문제를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환경특성 보호요인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가 아동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이 순한 기질을 갖는 데에는 어머니 양육의 영향이 크지만, 대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는 아버지 양육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육부모의 성별(.084)은 기질이나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통해 탄력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육부모의 성별로 인해 아동의 탄력성이 크게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형제자매의 유무(.140)는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외동아가 아니라 한 명 이상의 형제자매를 둔 아동이 탄력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지위(.156)가 높은 경우에 아동들이 더 규칙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밝은 정서를 가진 기질을 가지며, 이러한 기질은 탄력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양육부모의 지지, 친구의 지지를 통해 탄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이외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만한 성인 지지자와의 만남을 갖는 경우(.140)에는 탄력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담 및 치료를 받은 경험(.142)이 있는 아동일수록 높은

탄력성을 나타내었으며,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정서중심적인 대처방식을 덜 사용하고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밝은 정서를 가지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질(.502)을 가진 아동은 부모의 이혼 후에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 탄력성을 더 잘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거나, 부모나 친구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음으로써 탄력성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적으로 융통적이고 기분이 항상 밝고 명랑하며 주의집중적인 일반 가정의 아동들이 문제중심적으로 대처하거나 지지를 추구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임희수와 박성연(2002)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일수록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자주 경험하게 함으로써 어머니와 아동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정서를 덜 표현하는 아동일수록 부모가 효율적인 훈육태도를 보인다는 한세영과 박성연(1996)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양육부모로부터 받는 지지(.191)는 기질로부터 영향을 받아 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이나 교사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즉, 기질적으로 순한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더 많이 지지받으며, 이로 인해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아동은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교사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모의 지지를 많이 받는 아동일수록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덜 사용한다는 결과는 부모의 합리

적 지도와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적 표현이나 회피적 방식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면에서는 임희수·박성연(200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친구와 교사의 지지 측면을 살펴보면, 규칙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밝은 정서를 지닌 기질을 가지거나 학년이 높을수록 아동들은 친구들로부터 지지(.158)를 많이 받게 되는데,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높은 탄력성을 보이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의 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을수록 높은 탄력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는 사회적인 지원을 찾거나 자기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접근적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심희옥(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040)는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아동들이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들이 문제중심적 대처방식도 많이 사용하지만, 정서중심적 대처방식도 함께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는 이혼 가정의 아동들이 스트레스 대처방식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탄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섯째, 대처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기질,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이혼 후 경과기간, 부모의

성별, 상담 및 치료 경험 여부,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를 통해 문제중심적 대처방식(.200)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들의 탄력성은 더 높아지기도 하였으며, 성별, 상담 및 치료를 받은 경험, 부모로부터의 지지 등은 정서중심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들, 이혼 경과기간이 짧은 아동들이나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는 아동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고, 정서중심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아동들이 문제중심적인 대처방식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아동들의 기질이 순할수록, 교사의 지지 및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상담 경험이 있는 아동일수록 문제중심적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경과기간이 짧다는 것은 아동들이 나이 든 후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아동들은 우울이나 죄책감 등에 사로잡혀있기 보다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정도의 인지적 성숙을 이룬 아동들이기 때문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이렇게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대처에 실패하게 될 경우, 사회적 심리적인 부적응을 보이게 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사회·정서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중재변수라고 보는 주장이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민하영·유안진, 1998; Lazarus & Folkman, 1984).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016)은 여아인 경우에 정서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며 이것이 탄력성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서중심적인 대처의 사용이 문제중심적 대처의 사용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 탄력성에 미약하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위협의 영향을 다소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073)이 높아질수록 탄력성에 직접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의 지지를 더 많이 받게 되면서 위협의 영향을 다소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중심적 대처방식(-.070)은 여아들이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대처방식으로 인하여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들이 이러한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남녀가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다른 전략을 사용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문제와 거리를 두는 대처방식이 원만한 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 심희옥(2000)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이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와 거리를 두거나,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공격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 적응하도록 회복하는 능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중심적 대처방식과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 완전히 반대의 특성만은 아니며,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함과 동시에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됨을 시사한다. 실제로,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기도를 하거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길 바라거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남과 동시에 해결에 대한 의지와

해결을 위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아동들이 정서중심적인 대처방식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정서중심적인 대처방식과 문제중심적인 대처방식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함으로써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도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보호 및 위험요인은 Emery와 Forehand(1996)가 규명한 이혼 가정 아동들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요인들과 대체로 일관된 결과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동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에 위험요인이 된다고 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여아인 경우에 간접적으로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성별이나 교사의 지지와 같은 변인은 매우 미약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면에서는 이들의 연구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이 규명했던 변인들은 대체로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 부모의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의 지지와 같은 변인들이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효과만을 미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탄력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보다 적합한 보호요인을 제공하고 위험요인을 완충시켜준다면, 아동들은 자신이 가진 탄력성을 더욱 증진시키고 보다 긍정적인 적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가정 아동들의 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특성은 대체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나, 근본적인 기질 특성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질이 탄력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자칫 탄력성도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질적인 특성도 생의 초기에 양육자와의 ‘조화의 적절성’을 이룸으로써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라도 변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 부모-자녀 관계의 조기 개입을 통해 기질적 특성에서의 변화를 다소 유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혼으로 인해 부모 역시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겪기 때문에 부모들은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지지해주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혼을 경험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부모-자녀간의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부모에게 개입을 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 증진은 물론, 간접적으로 자녀의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은 개인 및 가족의 특성에 의해서도 탄력성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래의 지지가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아동들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또래 상담제도를 활성화하여 도움을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혼 가정 아동의 개인,

가족, 사회적 지지체계의 측면에서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으나,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갈등이나 양육 스트레스 등과 같이 부모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측정하지 못하였고, 대상 아동들에 비해 분석할 수 있는 변인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분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형제의 수 및 출생 순위, 기질의 하위 차원 등과 같은 보다 세부적인 여러 변인들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혼 가정 아동들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및 위험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개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예비연구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혼 가정 아동들의 탄력성 관련 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이혼 가정 아동들의 적응을 돕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권연희 · 박경자(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3), 27-44.

김문혜(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미영(1999).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일상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민정 ·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 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7.

김인순(199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치원에서의 유

아의 적응과의 관계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민(1993). 청소년기 기질 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지숙(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양식 분석.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지영(1986). 아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사의 교육적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혁준(2001). 부모의 효율적 훈육태도에 관련된 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22(1), 35-50.

민하영 · 유안진(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민하영 · 유안진(2000).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황 간 일관성 및 내 · 외 통제소재에 따른 대처행동.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심희옥(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19-33.

윤연희 · 홍창희 · 이진환(2001).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심리과학*, 10(1), 33-53.

이 영 · 조연순(1994). 아동의 세계. 서울 : 양서원.

이정미(1996). 국민학교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법 유형.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임희수 ·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정동화 (1996).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시원 (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추정옥(200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세영 · 박성연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 Barrera, M. Jr.(1981).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pregnant adolescent : Assessment issues. In B. H. Gottlieb (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 Sage.
- Berndt, T. J.(1981). Age changes and changes over time in 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 between friends. *Child Development*, 17, 408-416.
- Blennow, I. P., & Neil, T. F.(1981) Temperament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relation to gender, birth order, and social cla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710-714.
- Block, J.(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Bryant, B. K.(1985). The neighborhood walk : Sources of support in middle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 Buss, A. H., & Plomin, R.(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Y : Wiley.
- Cochran, M. M., & Brassard, J. A.(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Crouter, A., & McHale, S.(1989). Child-rearing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age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Mo.
- Dubow, E. F., & U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Emery, R., & Forehand, R.(1996).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being : A focus on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 Processes, mechanisms, and Interven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iring, C., & Lewis, M.(1987). The child's social network : Sex differences from three to six years. In C. Feiring & D. L. Coates(Eds.), *The social networks of males and females*, 17, 621-636.
- Fox, R. L.(1995). Maternal factors related to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al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 431-441.
- Garbarino, J., & Gilliam, G.(1980). *Understanding abusive families*. MA : Lexington Books.
-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Howes, C., Matherson, C. C., & Hamilton, C. E.(1994). Maternal, teacher, and child care history correlates of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eers. *Child Development*, 65, 264-273.
- Izard, C. E.(1994). Cognition is one of four types of emotion-activating systems. In D. Ekman & D. J. Davidson(Eds.) *The nature of emotion : Fundamental question*(pp.203-207).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274-305).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d, G. W.(1992). Themes and theories : Perspectives on progresses in family-peer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Eds.), *Family-peer relationships : Models of linkage*(pp.3-34).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dd, G. W., Le Sieur, K. D., & Profilet, S. M.(1993). Direct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children's peer

- relations. In S. Duck(Ed.),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 Understanding relationship processes*(series vol. 2 pp.152-183). CA : Sage.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 Springer.
- Lytton, H.(1990). Child and parent effects in boy's conduct disorder : A reinterpre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83-697.
- Sroufe, L. A., Schork, E., Motti, F., Lawroski, N., & LaFreniere, P.(1984). The role of affect in social competence. In C. E. Izard, J. Kagan, & R.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pp. 289-319).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cker, C., & Dunn, J.(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childhood : Links with friendships and peer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227-244.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 Brunner/Mazel.
- Tietjen, A. M.(1982). The social networks of preadolescent children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5, 111-130.
- Ventura, J. N., & Stevenson, M. B.(1986). Relation of mother's and father's reports of infant temperament, parents'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family characteristics. *Merrill-Palmer Quarterly*, 32, 275-289.
- Windle, M.(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522-530.
- Windle, M., Hooker, K., Lerner, K., East, P. L., Lerner, J. V., & Lerner, R. M.(1986). Temperament, perceived competence, and depression in early and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84-392.
- Wolin, S. J., & Wolin, S.(1993). *The Resilient Self : How Survivors of Troubled Families Rise Above Adversity*. NY : Villard Books.

2004년 10월 31일 투고 : 2004년 12월 21일 채택